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0원 상승한 1,294.3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전일대비 16.00원 상승한 1,294.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8.90원 상승한 1,287.20원에 개장했다. 전일 과매도 인식으로 상승 출발한 환율은 개장이후 위안화 약세에 연동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포지션 순매수 전환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였지만 장 마감 시점에 역외 매수 물량 유입에 재차 상승하면서 1,290원 중반까지 고점을 높이다가 1,294.30원 고점에서 장을 마감하였다. 달러인덱스는 102.5선이었으며, 장중 변동폭은 10.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93.47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87.20	1294.30	1283.80	1294.30	1289.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3.27	998.23	973.27	992.0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84.44	1402.37	1383.89	1392.5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	-5.98	-12.67	-25.32
결제환율(수입)	-0.2	-5.01	-11.37	-22.6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유럽 은행권 위기 우려에 위험회피 지속...1,290원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94.30원) 대비 1.10원 상승한 1,292.50원에서 최종 고가 됐다.

금일 환율은 도이치뱅크 등 유럽 은행권에 대한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 지속 및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이 예상된다. 독일의 대형 은행인 도이치은행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발표한 뒤 잠재적 손실 우려에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디폴트스왑(CDS)프리미엄이 급등하였다. 독일 최대은행으로 전이된 은행권 불안에 위험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유럽 증시 급락 및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 또한, 제임스볼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 경제포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는 잦아들 것

이며, 견고한 지표 회복을 감안하여 연말 최종금리 전망치를 상향 제시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화지수는 103.1선으로 상승하여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기말 수출네고 물량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89.33 ~ 1298.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82.7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0원 ↑
	■ 美 다우지수 : 32237.53, +132.28p(+0.4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4.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70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